

티몬 '몬스터 세일'...꿀딜에 최대 20% 할인쿠폰 더 추가

티몬은 12월 한 달 간 '몬스터 세일'을 통해 최대 20%의 추가 할인 쿠폰과 100억원 상당의 티몬 적립금 등 총 300억원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몬스터 할인'은 최자가 수준의 티몬 자체 프로모션 상품 '꿀딜'에 최대 20% 할인 쿠폰을 더 추가한 것이 특징. 또 '티몬 적립금'은 1000만원(20명), 100만원(300명), 1만원(5만명)이 제공된다.



비즈 & 피플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 여행’

마중여행사 김창원 본부장

통계에 따르면 한 해 2000여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그만큼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가는 뻔한 지역, 뻔한 경험이 아닌 새로운 곳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그중에서도 시베리아 투어는 참신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끄는 여행 아이템이다. 스포츠동아와 공동사업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 여행을 기획한 마중여행사는 러시아투어 전문 여행사로 명성이 높다. 마중여행사의 김창원 본부장은 30년이 넘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 투어에 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다.

삼성화재배, 또 중국 커제가 웃나?

내일부터 튀자시 9단과 결승 3경기
명실상부 세계 1인자, 2연패 유력



삼성화재배 결승3경기에서 '중-중 형제대결'을 벌이는 커제 9단(왼쪽)과 튀자시 9단. 사진제공 | 삼성화재

2016년 지구촌 반상을 마지막으로 달굴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결승3번기가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다. 아쉽게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중-중대결'이다. 결승에 오른 두 명은 커제 9단과 튀자시 9단. 커제는 지난해 우승자이다.

이름의 무게로 보면 커제의 2연패가 유력해 보인다. 커제는 현재 열리고 있는 메이저 세계대전 6개 중 절반인 3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명실상부한 세계 1인자다. 한국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세돌도 커제에게 준결승전에서 패했다.

커제의 상대 튀자시도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강자다. 2014년 제18회 LG배에서 우승했다. 이번 대회의 총 상금규모는 8억원. 이중 3억원이 우승자에게 주어진다.

올해 삼성화재배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이 모토였다. 미래의 바둑꾼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던 삼성

화재배는 이번 결승전에 어린이 바둑팬들을 초청한다. 2014년 우승자 김지석 9단이 어린이 바둑팬들을 위해 공개해설을 하고 사인회, 기념촬영의 시간을 마련한다. 삼성화재배는 지난 6월 끝나무 선발전을 치러 우승자에게 통합예선 출전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진행으로 바둑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어린이 32명을 선발해 본선 개막식에서 본선 진출기사들과 함께 입장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 결승1국에서는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가 명예심판을 맡을 예정이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대형마트 3사, 설 선물 예약판매 할인 경쟁

이마트·홈플러스, 최대 30% 할인
롯데마트 최대 50만원 환급혜택



대형마트 3사의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가 이번 주 시작된다. 모델들이 이마트의 2017년 설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이마트

대형마트 3사가 이른 설 선물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알뜰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좀 더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예약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8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물량은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행사 카드로 선물세트 구매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예약판매 기간 중에 설 선물세트를 일찍 구매하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도입했다. 아울러 단체 선물용 세트를 동일 품목 50만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도 준다.

홈플러스도 8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전국 전 점포와 익스프레스, 온라인 쇼핑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 동안 선호도가 높은 대표 선물세트 약 260종을 예약 판

매한다. 12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 및 웨밀리카드 회원에게는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마트도 5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올해는 품목 수를 13% 이상 확대해 총 189개 품목을 준비했다. 9대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0%의 할인 혜택과 함께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으로 돌려받거나, 현장에서 최대 50만원 즉시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완벽한 무공해...러시아, 에코투어의 진수”

1m 쌓인 이끼·투명한 겨울왕국 장관
기차안 낚신 사람들과의 소통도 묘미
‘야생화 핀 바이칼호’ 봄 상품 준비 중

- 러시아지역 투어 전문 여행사로 유명하다. “러시아에서도 특히 문명과 산업의 때가 묻지 않은 무공해 지역의 자연투어가 주력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리스크, 옴스크 지역 그리고 이번에 스포츠동아와 함께 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여행 등이 대표적이다. 러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같은 국가의 대자연 경험을 상품화 하고 있다.”

- 34년 경력의 여행업계 베테랑이다. 입문한 계기는 “여행업에 발을 디딘 것은 1980년대 초다. 지금은 실감 못하겠지만, 그때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없던 시기였다. 서울에서 해외여행 취급을 허가받은 여행사가 6개에 불과했다. 주로 선원, 건설노동자 등의 해외송출, 비즈니스 투어, 해외학회 참가였다. 1998년부터는 통일그룹 계열 여행사로 옮기면서 대북관광 사업에 참여, 금강산 데일리 투어 같은 여행상품을 개발했다.”

- 러시아여행 콘텐츠는 언제부터 개발했다. “2002년에 북한관광 첫 상품을 개발해 꾸준히 진행하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장벽에 부딪혔다. 그래서 백두산 중국접경지역 상품을 개발했고, 이후 자연스레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로 영역을 넓혔다. 2009년 독립해 지금 회사를 세우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바이칼 트레킹을 특화해 상품으로 만들었다.

- 아직 유럽 다른 지역이나 아시아에 비해 러시아는 해외여행의 주요 시장이 아닌데,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는 러시아 초청 비자를 받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요즘 웬만한 사람은 다 해외여행 경험이 있을 정도로 보면



“이곳이 1년 사계절 내내 청정자연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시베리아 횡단철도여행의 하이라이트 바이칼호 투어를 설명하는 김창원 마중여행 본부장. 여행업계 경력 34년의 베테랑으로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트레킹·에코투어 전문가다. “여행상품 개발하느라 해외를 오가다 보면 자연스레 그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며 사무실 창가에 걸어둔 태극기가 인상적이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화되면서 어지간한 곳은 다들 갔다.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관광시장의 가능성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잠재력을 본다면 러시아가 무궁무진하다.”

- 여행지로 러시아가 갖는 매력과 콘텐츠의 잠재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에코, 자연투어에서 볼 때 러시아는 방대한 국토 덕분에 다양한 자연과 식생을 가진 보고다. 굳이 긴 시간을 투자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모스크바까지 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이용해 바이칼 호수와 같은 천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원양 어업으로 친숙한 감자가 반도 지역에서는 다양한 식생과 함께 백야와 같은 북극 체험도 가능하다.”

- 이번에 스포츠동아와 함께 진행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 여행의 매력은?

“공장 굴뚝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무공해 자연을 만날 수 있다. 이끼가 1m 가까이 쌓인 곳을 걷는다면, 깊은 속까지 투명하게 보이는 완벽한 겨울왕국도 경험할 수 있다. 일상에서 친숙했던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해방돼 시속 80km 안팎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슬로우 투어이기도 하다. 가족이 함께 간다면 긴 여정의 기차여행에서 모처럼 가족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겨울철 시베리아, 특히 기차를 2박3일 타는 것에 두려움도 있는데.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떻게 지낼까 걱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열차가 출발하면 금방 적응하고, 어느 순간 함께 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역에 먹거리를 팔러 나온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는 즐거움도 있다. 개인적으로 기차여행을 책임지고 안에서 소소한 물품도 파는 차장과 친해지는 재미를 느껴보고라고 권한다. 여행은 내 스스로가 가치와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 러시아 외에 중앙아시아 상품도 관심이 쏠린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시베리아와 달리 스텝 기후의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고산지대에선 빙하도 볼 수 있다. 넓은 평원에서 말을 타는 승마와 트레킹, 야생화 투어가 매력적이다. 텐트를 갖고 이동해 캠핑도 가능하다.”

- 앞으로 추진, 또는 구성하는 상품이나 지역이 있다면.

“북극투어와 백야 체험이 가능한 캄차카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역사적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천산산맥 투어도 있다. 러시아 이외 지역에서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히말라야 투어, 안나푸르나 소프트 트레킹을 내년 3월에 론칭 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겨울에 가지만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바이칼 호수 주위를 트레킹 하는 상품도 준비 중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김창원 본부장

▲1956년생. ▲청주고, 청주대 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동부그룹 동부고속관광, 세일여행사(주) 본부장 ▲한국관광경영학회사, 한국여행협회이사 ▲여행업 34년

★ 2016년 상반기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히트상품 선정 ★



**조류독감(AI), 구제역, 광우병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메뉴!!** 지금은 실속이 최고! 역대 식당이 부럽지 않은
명인매콤명태조림으로 부담없이 시작하십시오!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검증된 바로 그 메뉴
명인매콤명태조림
폭발적 인기를 누리는
대표 국민 생선메뉴
입니다.



중독성 강한 매콤달콤한 양념이 일품
매콤명태조림

대한민국 최저 파격가!
① **소스비법 전수비 (별도 상담)**
② **취급점 창업비용 50만원**
③ **체인점 창업비용 200만원 (무이자대출)**

명인매콤명태조림
놀라운 입소문으로
오픈점마다 **대박매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 중독성 강한 맛 창출! 강력한 차별화 메뉴
-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원조 소스의 비밀!
- 조리전수로 주방장 필요없고 원가 대폭절감 순수익 증가
- 사계절 비수기없이 줄서서 찾는 유명 프랜차이즈 메뉴

취급점 및 체인점 문의전화

02)492-4406